

# 한국인의 占風俗과 『占察經』에 나타난 占의 역할

이 학 주  
(강원대학교)

## 1. 서론

이 연구는 한국인의 점풍속과 불교의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에 나타난 점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신앙에 대한 심리를 갖고 있듯이, 한국인도 종교여부를 떠나서 신앙 심리를 갖고 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위급에 닥치면 자신도 모르게 신에게 의탁한다. 이렇게 신앙 심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요소가 심중에 잠재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요소는 생활에 불편을 끼치게 되는데, 그러한 불안이 깊어지면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미래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때 미래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이른바 점(占)이라는 것이다.

점은 한국인에게 있어 일상적이다. 찾아보면 생활 전반에 걸쳐 점풍속(占風俗)이 없는 곳이 없다. 곧, 모든 생활 속에는 점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하다 못해 남자들의 술자리에서 항상 듣는 말이 있다. 술잔을 따르면서 술병의 마지막 술이 잔에 가득차면 아들을 낳거나, 미인을 얻을 것이란 말을 쉽사리 한다. 여성들이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면 재수가 없다고 해서 그날은 조심한다. 이처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생활 속에는 알게 모르게 점

풍속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6월 4일 MBC뉴스데스크에 의하면 점을 보는 역술인이 등록된 사람만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오히려 점집이 더 느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듯 불교경전에도 점을 통해 전생의 업보를 알아보고 그에 맞는 수행을 골라 할 것을 권하는 것이 있다. 이 경전을 『점찰업보경(占察業報經)』 또는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앞으로는 『점찰경』으로 줄여 말함)이라 한다. 불교경전에는 8만대장경이 있는데 어떤 내용의 경전이 없겠나만, 『점찰경』은 또 다른 관심과 흥미를 일어나게 하는 경전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점풍속과 『점찰경』은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는 것은 아주 흥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인의 점풍속과 『점찰경』의 점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점이 어떤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무엇에 목적을 두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연구방법은 한국인의 점풍속과 『점찰경』의 역사적 전개를 알아보고, 두 가지의 점 역할을 고찰해 보는 것으로 한다. 이 같은 방법을 택한 것은 한국인의 점풍속과 『점찰경』에서 점이 가지는 역할과 『점찰경』의 목적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의 불교는 오랫동안 무교(巫敎)와 산신 신앙(山神信仰) 등의 민속신앙과 습합되어 있었다. 불교 또한 신라와 고려를 거치는 오랜 시간동안 한국의 국교로써 한국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인의 점풍속과 『점찰경』의 점은 어떤 형태로든 유사한 관련을 가질 것이며, 또한 다른 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점풍속의 연구대상으로는 한국인의 일생의례와 세시풍속 및 민속 신앙 등에 두었다. 『점찰경』은 영선사 번역본으로 인터넷 카페에서 내려 받았다.<sup>1)</sup>

이처럼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점풍속과 불교의 점 관련 경전의 상호관계를

1) 『점찰경』을 번역한 것은 『한글대장경』 제163권, 대구 파계사 성우 스님의 단행본, 영선사본이 있는데, 한글대장경본과 영선사본은 인터넷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두 본은 다소 번역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내용은 같다.

통해 점의 역할과 『점찰경』의 목적을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점과 우리의 풍속, 그리고 불교는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를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논문의 의의를 둘 수 있다.

## II. 한국인의 점풍속과 점복의 역할

이 항목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점복에 관한 여러 기록과 점복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고찰하는 것은 한국인의 생활에 있어 점복이 어떻게 관련을 가졌으며, 그것은 왜 그렇게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는지를 알고자 하는데 있다. 그리고 『점찰경』이라는 불교의 경전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어서 짧은 기간에 확산되는 원인의 단초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점복과 한국인의 생활, 점복의 역할로 항목을 나누어 고찰한다.

### 1. 점복과 한국인의 생활

현전하고 있는 각종 역사서와 설화와 민속지 등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향유해 온 점복에 관한 기록들이 산재해 있다. 아울러 고소설의 단골 제재로 점복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연구한 논저들도 산견되는데 특히 민속학에 있어서는 꼭 다루어야 할 분야 중의 하나이다.<sup>2)</sup> 그렇다면 점복이 실제로 어떻게 향유되어 왔는지 보도록 한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 행해진 점복행위를 들 수 있다. 중국 정사(正史) 가운데 한국에 대해 언급한 사실을 따로 묶어 놓은 책을 『조선전(朝鮮傳)』이라 한다. 이 책의 『삼국지(三國志)』<부여(夫餘)>조에 보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때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서 그 발굽을 보아 길흉을 점치는데, 발굽이 갈라지면 흉하고 발굽이 붙으면 길하다고 생각한다.”<sup>3)</sup>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아주 초기 형태의 점풍속으로 중국에서 거북의 등을 불에 태워서

2) 김태근 외, 『한국의 점복』, 민속원, 1995. 1-328쪽 참고.

3) 『국역 중국정사조선전』, 국사편찬위원회, 1986. 32쪽.

점을 치던 것과 같은 방법이다. 당시 소는 아주 신성시하는 가축 중의 하나였다. 농사를 지을 때 필수적이었고, 천제(天祭)를 지낼 때 희생물로 쓰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 게다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거행해서 신성성을 한층 고조시키고, 희생소를 잡아 점을 쳤다. 발굽이라는 강한 물질은 전쟁과 관련해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싸움에서 사기를 높이며, 또 보다 조심하자는 의미도 함께 했음은 당연하다. 곧, 발굽이 붙으면 하늘의 도움이 있을 것으로 믿어 전쟁에 임하는 병사와 장수의 사기가 높아질 것이고, 발굽이 떨어지면 함부로 공격을 하지 않고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전쟁에 임했을 것이다. 발굽점이 가지는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국가에서 중대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점을 쳤다는 기록은 흔하다.

신라의 장수 김유신의 탄생담에는 환생설화와 함께 추남(楸南)이라는 유명한 고구려 점쟁이 얘기가 나온다.<sup>4)</sup>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구려에서는 나라에 변고가 있으면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쳤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점쟁이는 어떤 방식으로 점을 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자 속에 든 쥐와 마릿수까지 맞춘 것을 봐서 상당히 영험한 점쟁이였다. 오죽하면 자신의 미래세까지 알 수 있었을까?

신라에는 일찍이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대(占星臺)라는 것이 있었다.<sup>5)</sup> 점성대는 점성술과 관련이 있는 관청이었다. 점성술은 신라 이후 고려, 조선에도 존속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점복과 관련해서 신라에서는 관상감(觀象監)을 두고 나라의 제반사를 점치게 하였다. 고려조에서도 태사국(太史局)과 태복감(太卜監)을 두었고, 조선조에서는 서운관(書雲觀)을 두어서 천문이나 점산(占筮) 등을 관장하게 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둘째, 불교(佛敎)에서의 점복행위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불교를 국교로 채택했었다.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주 많다. 그 중에 도승들은 미래를 예언할 줄 알고, 꿈 풀이 등을 한 예를 많이 찾아볼 수

4) 『삼국유사』, 이민수 역, 을유문화사, 1986. 94-5쪽.

5) 위의 책, 22쪽.

있다. 아예 스님들이 시주를 온다거나, 새해가 시작되면 스님들을 찾아 일 년 신수를 묻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조선조 태조의 꿈은 아주 유명한 예화이다. 어느 날 조선조 태조 이성계가 꿈을 꾸었다. 꿈에 만(萬) 집의 닭이 일제히 울기 시작하더니 천(千) 집의 다듬이질 소리가 동시에 들려오고 자기는 부서진 집에 들어가 서까래 셋을 지고 나오매,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떨어져 깜짝 놀라 눈을 떴다. 하도 이상하여 이성계는 이 꿈을 설봉산 암자의 중을 찾아 해몽 부탁을 하였다. 그 결과 왕이 되리라는 점괘를 받았다. 이때 설봉산 암자의 신승은 바로 무학대사(無學大師, 1327년~1405년)이다.

강원도 인제군에는 고구려의 대 재상이던 연개소문에 얽힌 설화가 있다. 설화 제목은 <갓선동이의 전설>이라고 한다. 이 설화에 의하면 연개소문의 아버지 연국혜(淵國惠)가 나이 50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부처님께 아들 하나를 점지해 달라고 빌었다. 마침내 그의 나이 50에 아들을 얻었다. 나이 갓 선에 얻었다고 해서 이름을 갓선동이라 했다. 갓선동이가 7살 되던 해 봄 행각승 한 분이 지나다가 갓선동이를 보고 “아까운 지고, 정녕 아깝고 녀”하고 한탄하였다. 이 소리를 들은 연개감은 그 연유를 행각승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행각승은 갓선동이는 장성하면 반드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나 타고난 수명이 짧아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것이라 하였다. 행각승은 갓선동이의 명을 길게 하려면 15년간 부모의 슬하를 떠나 집을 그리워하게 되면 그 액을 때울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그 후 갓선동이는 인제 땅에 버려졌고, 장성해서 당나라가 무서워하는 장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다.<sup>6)</sup> 이 이야기는 아주 보편적인 예언에 관한 점복설화이다. 길을 가던 스님이 아이를 보고 수명을 늘리려면 집을 떠나 있어야 한다는 상투적인 문구이다.

어쨌든 불교에서는 위의 예화처럼 점 행위가 아주 만연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셋째, 유교(儒敎)에서의 점복행위를 들 수 있다. 『주역(周易)』은 유교의 경전으로 우주만물의 원리를 담아 놓은 책으로 유명하다. 이 책은 선비들이

6) 『인제군사』, 인제군, 1996. 934-6쪽.

마음을 수양하고 철학적인 군자유(君子儒)가 되고자 공부하는 최고의 경전이다. 그래서 아주 많은 선비들이 『주역』 공부에 매달렸다. 반면에, 이 책은 점을 치는데 많이 활용 돼 왔다. 그래서 점이라 하면 바로 『주역』과 연계시켜 생각하게 되었다.

이처럼 『주역』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선비들이 심성수양을 하면서 군자유가 되고자 한 예이다. 그 예로 항간에 잘 알려진 <허생전>을 들 수 있다. 연암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의 주인공 허생은 10년을 기한으로 남산 아래 오두막에서 공부를 했다. 아내의 성화로 세상에 나와 짧은 기간에 100만금을 버는 능력을 발휘하고, 도로 숨는다. 이때 허생은 공부를 통해서 유교 최고의 경지인 성인이 되며, 성인이 때를 만나지 못하면 세상에 나오지 않고 차라리 숨는 것이 낫다<sup>7)</sup>는 『주역』의 원리를 실천하는 성인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다.<sup>8)</sup> 허생이 10년을 기한으로 읽었던 책은 다름 아닌 『주역』이었음을 이본(異本)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은 그날의 운세를 알고, 자신을 누가 해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것도 모두 역점을 통해서 알았다. 홍길동의 역점은 다름 아닌 『주역』을 갖고 치는 점이다.

이처럼 유교에서 최고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주역』은 군자(君子)와 성인(聖人)이 되는 경전이면서, 동시에 점을 칠 수 있는 점서(占書)의 기능도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때문에 조선조의 선비들은 『주역』 공부를 특히 많이 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주장한 김석문(金錫文:1658~1735)의 지동설(地動說)도 『역경』을 연구하다가 비롯된 것이다.<sup>9)</sup> 위정척사파로 유명한 유학자이면서 의병장이었던 의암 류인석(1842-1915)과 그의 아들 류해동은 일상적으로 주역점을 쳤다고 한다.<sup>10)</sup>

7) 『주역』의 「文言傳」에 의하면 “천지가 변화하면 초목이 번성하고, 천지가 폐쇄되면 현인이 숨는다.”라고 하였다. 김경탁 역저, 『주역』, 명문당, 1987. 459쪽.

8) 이학주, 「허생의 구조와 의미」, 『한겨레 어문연구』 1집, 한겨레어문학회, 2001. 300-314쪽.

9) 閔泳珪, 「十七世紀 李朝學人の 地動說:金錫文의 易學二十四圖解」, 『東方學志』 16집, 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1975. 1-15쪽.

10) 의암기념과 전시실에 동전과 주역점에 관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이학주 외, 『가정

넷째, 무교(巫敎)에서의 점복행위를 들 수 있다. 무당들의 주 업무는 점복에 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신을 받은 강신무(降神巫)를 비롯해서 세습무(世襲巫)와 수련무(修鍊巫)도 모두 점복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강신무는 신(神)을 불러서 점을 치고, 세습무와 수련무는 점치는 방법을 익혀 도구를 사용해서 점을 친다.

무당의 업무에서 굿은 최고의 점술행위이다. 굿을 통해 신을 강림 시키고, 신을 즐겁게 해 주면서 신으로부터 공수를 받는다. 공수는 일종의 신점(神占)으로 사람의 미래를 이야기 해 주는 것이다. 공수를 받은 사람은 그에 맞춰서 일을 해 나간다. 잘 될 거라면 거리낌 없이 일을 행하고, 손재수가 있다면 조심해서 일을 한다. 이로 보면 무교에서는 점이 일상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무조신화(巫祖神話)로는 <바리공주>를 꼽는다. 문복관련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옛날 삼나라를 다스리는 어비대왕이 길대부인을 국모(國母)로 맞이하게 된다. 그때 복자(卜者)를 찾아 천하궁에 가서 문복(問卜)을 하였다. 점복의 결과는 올해 결혼하면 7공주를 낳고, 내년엔 결혼하면 대군을 낳는 것이었다. 이를 부정한 어비대왕은 서둘러 결혼을 한다. 세월이 흘러 길대부인이 아이를 잉태했는데, 태몽으로 문복을 하니 딸이라고 한다. 둘째를 잉태하여 태몽으로 문복을 하니 또 딸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여섯 딸을 낳은 후 대군을 낳을 것이란 한 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일곱 번째를 잉태하게 되었다. 역시 태몽으로 천하궁에 가서 문복을 하니 공주라고 하였다. 과연 낳고 보니 딸이었다. 어비대왕은 실망이 너무 커서 공주를 용왕에게 진상이나 하라면서 버리라고 하였다. 그래서 어차피 버릴 것이니 바리공주라고 이름을 지어 옥함에 넣어 물에 띄워 보냈다. 이때 석가세존께서 서기가 서린 곳이 있어 가보니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래서 거지인 비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아이를 기를 것을 부탁한다. 어느덧 바리공주는 무럭무럭 자랐다. 그때 왕과 왕비가 한낱한시에 병이 들어 일어나지 못한다. 천하궁에 문복을 하니 옥황상제가

리 의병마을』, 춘천문화원, 2011. 미간행 구술조사자료, 의암의 증손자 류연창 응의 구술 참고.

접지한 7공주를 버린 죄로 그러하다고 하였다. 복자가 왕의 회춘은 용궁에서 약을 얻어먹든가, 무장승의 약수를 얻어먹어야 한다고 한다.<sup>11)</sup>

여기서 보듯 무교(巫敎)는 온통 점복으로 점철되어 있다. 어비대왕이 혼인을 할 때도 천하궁의 같이박사에게 가서 문복을 하고, 모든 공주를 잉태했을 때도 문복을 하고, 병이 들었을 때도 어김없이 문복을 한다. 곧, 점복행위가 일상생활에 그대로 녹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무교신화가 그렇듯이 불교의 이야기와 습합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민속(民俗)에서의 점복행위를 들 수 있다. 민속은 제 종교와 일상이 혼효되어 있으므로, 특히 점 풍속이 발달해 있다. 그래서 모든 행위와 의식에 걸쳐 점복이 빠지지 않는다.

민속신앙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신앙에서부터 서낭제와 산신제 등의 마을제사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제의 의식이 있다. 이때 빠지지 않고 행하는 의식은 소지(燒紙)올리기이다. 소지를 올리는 목적은 신의 감응을 알아보는 것으로 신앙에 있어 점복임을 알 수 있다. 소지가 잘 오르면 신의 감응이 있어서 바라는 바가 이뤄질 것이고, 소지가 잘 오르지 않으면 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날을 잡아서 다시 제의를 행하기도 하였다.

세시풍속의 점복행위로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보리점치기와 쯤생이별보기 등을 들 수 있다. 보리점치기는 정월대보름을 기점으로 밭에 있는 보리를 뽑아서 뿌리가 3개 이상이면 풍년이 들 것이고, 뿌리가 하나면 흉년이 든다고 믿었다. 그리고 쯤생이별보기는 2월 초 6일을 쯤생이 날이라고 한다. 이때 달을 따라 다니는 별을 쯤생이별이라고 하는데, 달은 어머니고 쯤생이별은 자식으로 보았다. 그래서 달과 별 사이가 가까우면 흉년이 들고, 멀면 풍년이 든다고 보았다. 곧, 자식이 배가 부르면 어머니를 가까이 따라가지 않고 배가 고프면 가까이 따라 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생의례의 경우는 온통 점복과 관련을 갖는다. 기자속(祈子俗)에서 ‘고기 잘 먹는 것 보니 아들 낳겠네. 음식 잘 만드는 것 보니 예쁜 딸 낳겠네.’라는 말은 아주 흔히 듣는 말이다. 주술기자의 경우는 남녀의 성기와 닮은 물체를

11) 김태곤 외, 『한국의 신화』, 시인사, 1988. 220-235쪽.



통과하거나 돌면 원하는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하고, 또 여성기 모양의 구멍에 돌을 던져서 들어가면 첫 아들을 낳는다고 하여 길을 가다가 돌을 던지는 풍습이 도처에 있었다. 강릉시 연곡면에 가면 송라사라는 절이 있다. 이 절 뒤편에는 맷돌이 있고 맷돌 위에 주먹 크기의 돌이 놓여 있다. 이 돌을 돌리면서 소원을 빌었을 때 소원이 이뤄질 것 같으면 돌이 붙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소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으면 돌이 계속 돌아간다고 하여 지나는 길손들이 맷돌 위의 돌을 많이 돌린다.<sup>12)</sup> 혼인 첫날밤 신랑상잡기라는 풍습이 있다. 신랑의 상에 쌀, 물, 술, 콩, 돈 등을 그릇에 담고 뚜껑을 덮는다. 그때 신랑이 가장 먼저 열어보는 것을 잘 한다고 하여 점치는 풍습이다. 또 신부의 가마가 들어올 때 신부에게 숟가락을 잡을 수 있는 만큼 손에 들리는데, 그때 많이 잡으면 식구가 많이 늘어서 잘 산다고 한다. 폐백을 할 때도 대추 등을 던져서 많이 받으면 아들딸을 많이 둔다고 한다.<sup>13)</sup>

이밖에도 다 거론하기조차 힘들게 많은 점복행위가 민속에서는 이뤄지고 있다. 곧, 일상의 모든 것이 점복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몇 항목으로 나누어서 한국인의 생활에서 점복이 차지하는 실례를 들어 보았다. 논의 과정에서 보았듯이 국가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에 걸쳐서 점복행위가 이뤄졌음을 역사와 설화 등에 걸쳐서 볼 수 있었다. 이에 한국인에게 있어서 점복은 일상생활이었음을 알 수 있다.

## 2. 점복의 역할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왜 그렇게 점복에 매달렸을까? 그것은 바로 점복이 갖는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태까지 점복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점복의 역할을 다룬 경우는 없었다. 점복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는데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역할과 비슷한 점복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능이 어떤 작용이나 활동을 뜻한다면, 역할

12) 이학주, 『아들 낳은 이야기』, 민속원, 2003. 207-208쪽.

13) 김익숙 · 이학주, 『강원인의 일생의례』, 민속원, 2005. 184-211쪽.

은 그 하는 일을 뜻하기 때문이다. 점복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은 것은 점복이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너무나 일상적이기 때문에 따로 이론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한번쯤 그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점복이 갖는 역할을 보기위해서, 선학들의 생각을 먼저 보도록 한다. 최인학은 점의 기능을 ①개인의 불안과 불만 등에 대한 갈등해소 기능, ②불행이나 질병의 원인설명기능으로 보았다.<sup>14)</sup> 김창진은 점복의 기능을 ① 지적 본능 충족 기능 ②정서적 불안 해소 기능 ③운명의 제액초복(除厄招福) 기능 ④농사 등에 쓰이는 과학적 기능 ⑤정해진 방향으로 유도하는 주술적 기능 ⑥수신과 노력을 가르치는 교육적 기능 ⑦ 화투점 등의 놀이 기능 ⑧사회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정치적 기능으로 분류하였다.<sup>15)</sup> 또 박계홍은 점의 목적을 ①神意에 대한 진실탐구, ②미래예측으로 보았다.<sup>16)</sup> 박성석은 ①신의에 대한 진실탐구, ②선택, ③미래예측에 점의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sup>17)</sup> 이러한 기능과 목적을 역할이란 측면에서 압축해 보면 대략 다음의 넷으로 말할 수 있다. 이 네 가지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 넷은 첫째로 궁금중 해소와 기대심리 충족, 둘째로 행위에 대한 확인, 셋째로 치유, 넷째로 선택의 역할이다.

첫째, 점은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여 기대심리를 충족하는 역할을 한다. 새해가 다가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력을 사러 서점에 들른다. 그것은 다름 아닌 토정비결을 보기 위해서다. 『토정비결』은 토정 이지함(1517-1578)이 지었다는 비결서이다. 토정은 조선 후기의 유학자이며, 실학자의 한 사람이다. 그런 그가 사람의 운수를 담은 비결서를 썼다. 『주역』은 자연의 섭리를 활용해서 대상으로 표현한 점서로 2차 해석을 가해야 하는 식자층을 위한 것이라면, 『토정비결』은 2차 해석을 가하지 않고 바로 운수를 점칠 수 있는 일반인을 위한 점서라 할 것이다. 이 토정비결은 — — —부터

14) 최인학, 「점과 민속」, 『한국민속학』, 새문사, 1988. 222쪽.

15) 김창진, 「점복의 의미와 기능」, 『한국의 점복』, 민속원, 1995. 95-102쪽.

16) 박계홍, 「점복·주술」, 『한국민속대관』 3,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5. 328쪽.

17) 박성석, 『한국의 민속』, 영남서원, 1993. 112쪽.

3씩 해서 八 六 三까지 총 45구로 형성되었다. 각 구에는 주해와 괘상으로 짧게 운수를 정리하고, 괘사라 하여 9단으로 묶어 일 년 신수를 정리했다. 그리고 각각의 월별로 초순 중순 하순으로 엮어서 신수를 설명하고 있다.<sup>18)</sup> 사람들은 이를 보고서 일 년의 궁금증을 풀고 기대를 갖는다. 운수가 좋게 나오면 기뻐하고, 나쁘게 나오면 조심을 한다. 각 월별로 초중하순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해당하는 달에는 특히 조심하고자 달력에 표시를 해두기까지 한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나오면 은근히 그 달에는 기대를 하는 것이다.

『토정비결』을 보듯이, 또 일 년 신수를 보기 위해서 절과 철학과 무당집 등을 찾는다. 이도 크게 다를 것은 없다. 모두 그 해 또는 평생 운수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좋은 운수가 나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우리 풍속에 ‘후생점치기’ 또는 ‘환토’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무교(巫敎)나 민속에서 죽은 이가 무엇이 되어 갔는지를 알고자 해서 하는 행위이다. 티베트의 스님들이 모래로 만다라를 그렸다가 지우는 불교 의례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하는 방법은 무교(巫敎)에서는 쌀가루나 밀가루를 큰 그릇에 판판하게 펴 놓고, 굶을 한 다음에 그 위에 난 발자국을 보고 망자가 무엇이 되어 갔는지를 점친다. 민간에서는 곡식을 까부는 키나 깨끗한 땅 위에 재를 체로 쳐서 놓고 그 위에 시루를 얹어 놓는다. 그리고 그 위를 관이 지나가듯, 상례가 끝난 후에 열어보면 자국이 남는다. 또 망자가 죽은 후에 첫 제삿밥을 지으면 밥 위에 자국이 남는다고 한다. 자국은 보통 새, 짐승, 사람 등의 발자국이 남는다. 이를 보고 망자가 무엇이 되어 갔는지를 점치는 것이다.<sup>19)</sup> 이 같은 후생점치기는 모두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좋은 것으로 환생하기를 기대하는 심리에서 비롯한 것이다.

둘째, 점은 행동에 대한 확인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 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확인해 보려고 애를 쓴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을제사나 개인적으로 산치성을 올리고 나서 점쳐보는 것으로 소지 올리기가 있다. 소지를 올리는 것은 제사에 대한 신의

18) 김혁제 주해, 『원본토정비결』, 명문당, 1997. 참고.

19) 김의숙이학주, 앞의 책, 332-6쪽.

응감정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정성을 드려서 제사를 올렸다면 소지가 잘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잘 오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소지를 올릴 때는 제사의 축문과는 상관없이 나름대로 축원을 하면서 가슴을 졸인다.

일 년 열두 달에 동서남북 무상출입을 할지라도 만사가 여의대통을 하  
오시고 몸소 고이 낮게 해달라고 소지를 올리오니 좌우로다가 **판단**을 해주  
십시오.<sup>20)</sup>

일 년은 열두 달 삼백은 육십오일 우리 송정마을의 전 주민이 그저 안과  
태평하고 무사태평하게 잘 지내게 해달라고 축원을 드렸으니 이 소지일장  
으로 길흉화복을 **판단**합니다. 미련한 인생이 무엇을 압니까? 그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물 아래로 소멸하시고, 오직 잘 되게 성찰해 주시옵소서.<sup>21)</sup>

이처럼 소지축원은 제사에 대한 감응과 앞으로 잘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  
을 해달라고 한다. 이것은 다름 아닌 점이 행위에 대한 확인의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점복은 치유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미래가 불안하  
고 불확실하다. 그 때문에 겉으로는 대범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초조하게 하루  
하루를 살아간다. 이 때문에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자리한다. 그  
욕구로 인해서 점복을 하게 된다. 점복을 해서 좋은 괘가 나오고, 잘 될 것이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의 안정을 가져온다. 이것은 엄청난 치유역할을 하는  
것이다. 비록 현실이 고달프더라도 희망을 갖고 일에 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마치 의사가 암에 걸린 환자에게 음식과 운동을 알맞게  
병행하면 곧 나올 수 있을 것이라 했을 때 갖는 암환자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

연초에 『토정비결』을 봤는데 좋은 괘가 나오면 일 년 내내 기분이 좋을  
수 있다. 또 평생신수를 봤을 때 지금은 고달프지만 몇 살부터는 운이 풀려서  
잘 될 것이라 점복자가 말하면 온갖 근심을 잊고 현실에 임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점찰경』에서도 점을 치면 마음을 치유하고, 의심스러운 바를 해결할

20) 이학주, 『인제사람들의 마을신앙』, 인제문화원, 2009. 155쪽. 박수천(80, 인제군  
갑둔리. 2009.9.1) 제보.

21) 위의 책, 49쪽. 전재순(70, 인제군 가아리. 2009.8.4) 제보.

수 있다고 하였다.<sup>22)</sup> 점쟁이를 만나서 리포트를 제출한 어느 여대생의 부연설명에서, 점쟁이가 하는 말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었지만 기분은 좋았다고 한 예도<sup>23)</sup> 다른 아닌 점이 갖는 치유의 역할 때문이었다.

넷째, 선택의 역할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끔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놓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무엇을 하는 것이 더 나은지를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 이때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 행하는 것이 다른 아닌 점복이다. 비근한 예로, 길을 가다가 손바닥에 침을 뱉고 다른 손바닥으로 쳐서 방향을 선택하든가, 신발을 던져 그 코가 가리키는 곳으로 선택하는 것도 일종의 점복행위이다. 그렇듯이 우리는 사업이든, 직장이든, 사건이든, 무엇이든 간에 선택의 기점에서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점집을 찾아서 점을 친다.

### Ⅲ. 점찰법회와 『점찰경』에 나타난 점의 역할

앞서 보았듯이, 예나 지금이나 점복은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것은 어떤 종교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점복을 생활화하였음을 나타내는 사실이다.

『점찰경』은 불교의 교리를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전생의 악업을 참회하고, 그 업에 따라 수행하여 불법을 깨닫게 하는 경전이다. 보통 중생들은 미혹됨이 많아서 불법을 믿고 수행하는데 게으르다. 이에 눈에 드러나는 점의 현상을 통해서 불법에 정진하게 하는 방법을 쓴 것이 바로 『점찰경』이다. 이 경전은 기본적으로 앞서 살펴 본 궁금증 해소와 기대심리 충족, 행위에 대한 확인, 치유, 선택의 역할을 모두 갖고 있으면서, 매개라는 또 다른 점의 역할을 활용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점찰경』을 통한 점찰법회를 우리나라에서 누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삼국유사』를 통해 살펴보고, 『점찰경』에 나타난 점의 역할을 보도록 한다. 『삼국유사』는 우리나라 풍속을 알아보는 최고의 자료이면서 『점

22) 영선사본 4쪽.

23) 최인학, 앞의 책, 220쪽.

찰경』에 대한 기록을 가장 잘 다뤘기 때문이다.

## 1. 『삼국유사』를 통해 본 『점찰경』과 점찰법회

『삼국유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점찰법회를 연 것은 원광법사에 의해서다. 그 다음은 원효대사, 진표대사, 지혜스님으로 기록돼 있다. 이후 그 제자들에 의해서 점찰법회는 항시 필요할 때마다 열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권4 <원광서학>조에는 점찰보(占察寶)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한다.

의론해 말했다. “법흥왕이 불법을 일으킨 후로 부처님께서 인간을 건지는 나루가 비로소 설치되었으나 진리가 있는 깊은 경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때문에 마땅히 불교에 귀의하여 괴로움을 없애고 참회하는 법으로 어리석고 어두운 중생들을 깨우쳐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 때문에 원광은 살던 가서갑(嘉棲岬)에 점찰보(占察寶)를 두어 이것을 상규(常規)로 삼았다. 이때 시주하던 여승 하나가 점찰보에 받을 바쳤으니, 지금 동평위의 밭 일백 곁이 바로 이것이며, 옛날의 대장이 지금도 있다.<sup>24)</sup>

점찰법회를 열게 된 배경과 목적과 운영과 진행까지 아주 간략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점을 쳐서 지난 업보를 알고 그에 따라 참회하고 수행하여 깨달아서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후술할 『점찰경』의 서사구조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삼국유사』 권4 <사복불언(蛇福不言)>조에는 삼생의 인연으로 인해 나고 죽는 이야기가 전한다. 요약하면 이렇다. 경주에서 과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12살이 되도록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사동(蛇童)이라 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죽자 원효가 그를 맞아 예를 표했으나, 사동은 답례도 하지 않고, 옛날에 경을 신고 다니던 암소가 이제 죽었으니 장사지내

24) 『삼국유사』, 앞의 책, 298쪽.

자고 한다. 이에 원효에게 사동이 범회를 열고 계(戒)를 주게 하니, 원효는 “세상에 나지 말 것이니 그 죽는 것이 괴로우니라. 죽지 말 것이니 세상에 사는 것이 괴로우니라.”하였다. 사동이 너무 번거롭다고 하며 고쳐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모두 괴로우니라.”라고 말했다. 사동이 어머니를 업고 연화장 세계로 간다는 계(偈)를 말하고, 갈라진 땅으로 들어가는데 청허한 세계가 인간의 세계는 아니었다. 그 후 세상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금강산 기슭에 도량사(道場寺)를 세워 매년 3월 14일 점찰회(占察會)를 여는 것을 상례로 삼았다.<sup>25)</sup> 이 역시 삼생의 인연과 관련하여 점찰범회를 여는 목적과 계속해서 점찰범회를 시행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들이 마지막으로 도달해야 할 세계인 연화장(蓮花藏)세계를 소개하고 있어 흥미롭다. 이는 다름 아닌 점찰범회를 통해 나갈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또 『삼국유사』권4 <진표전간(眞表傳簡)>조에는 제목이 뜻하듯 진표가 얻은 『점찰경』의 간자를 제자에게 전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점찰범회가 대중화 되는 실례를 보여준 것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진표대사는 출가 후 몸을 희생 시키는 참회법으로 수행을 하여 지장보살을 뵈고 정계를 받았다. 진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수행을 하여 미륵보살로부터 『점찰경』 2권을 받고, 수행의 보답으로 증과(證果)의 간자(簡子) 189개를 얻었다. 미륵보살은 “이 가운데서 제8간자는 새로 얻은 묘계(妙戒)를 비유한 것이요, 제9간자는 구족계(具足戒)를 얻은 것에 비유한 것이다. 이 두 간자는 내 손가락뼈이며, 나머지는 모두 심향(沈香)과 단향(檀香)나무로 만든 것으로 이것은 모두 번뇌에 비유한 것이다. 너는 이것으로서 세상에 범을 전하여 남을 구제하는 뗏목을 삼으라.”하였다. 이후 진표대사는 열심히 불법을 전하여 물고기와 자라도 계를 받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간자를 전하여 점찰범회를 있게 하였다.<sup>26)</sup> 점의 방법과 수행의 방법을 일컫고 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부처를 보았다는 신심의 깊이를 말하고 있다.

같은 내용이 진표의 죽음과 무덤에 얽힌 신이(神異)까지 정리하여서 『삼국유사』권4 <관동풍악발연수석기(關東楓岳鉢淵蘂石記)>에 이야기로 전하고

25) 위의 책, 329-330쪽.

26) 위의 책, 331-2쪽.

있다.<sup>27)</sup> 여기서서는 몸을 돌보지 않고 부단한 수행을 하면 목적인 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점찰경』을 미륵보살로부터 받은 내용과 제자들에게 전하게 됨을 기록해 두었다.

『삼국유사』 권5 <선도성모수희불사(仙桃聖母隨喜佛事)>에는 선도산 성모가 지혜(智慧)라는 비구니에게 『점찰경』을 내려 행하는 것이 나와 있다. 곧, 진평왕 때 지혜라는 비구니가 있었는데, 어진행실이 많았다. 불사를 하려 하나 힘이 모자랐다. 그때 선도산의 神母라는 仙女가 불사를 할 금을 주고, 해마다 봄가을의 10일에 신도들을 모아서 중생들을 위해서 점찰법회를 베푸는 것으로 일정한 규정을 삼도록 하라고 했다.<sup>28)</sup> 이 역시 행실이 어진 비구니에게 일정한 날에 점찰법회를 베풀 것을 말했다.

지금까지 『삼국유사』에 실린 『점찰경』과 점찰법회의 기록을 살펴보았다. 『점찰경』을 수여 받은 사람은 불교 수행에 몸을 아끼지 않고 정진한 승려이며, 결국엔 불법을 깨달아서 연화장 같은 극락세계에 들었다. 그리고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는 승려는 직접 지장보살, 미륵보살, 선도산 성모와 같은 불보살 곧, 부처님을 만나고 그들의 도움을 얻게 되었다.

이처럼 신라시대에 이미 『점찰경』을 통해 법회를 여는 점찰법회가 많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스님들이 점이 갖는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그를 활용해서 수행하고 불법에 귀의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 2. 『점찰경』의 구조와 『점찰경』에 나타난 점의 역할

『삼국유사』에는 『점찰경』의 생성과 정착과정에 대한 유래가 나온다. 곧, 593년 중국 광주에서 경전을 읽으면서 참회를 하는 중이 있었다. 그러면서 가족으로 된 선과 약의 두 첩자(帖子)를 던져서 점을 쳤고, 몸을 괴롭히며 참회해서 지은 죄를 없애게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남녀가 한데 어울려 행하였다. 이를 본 관리가 요망스러운 일이라 하니, 스님은 『점찰경』에 따른 것이라

27) 위의 책, 336-338쪽.

28) 위의 책, 358쪽.



했다. 관리가 황제에게 아뢰니, 황제가 여러 승에게 물었다. 그러니 근대에 나온 경이며, 몸을 괴롭히는 것은 불경의 의도와는 다르다고 하였다. 이에 황제는 칙령을 내려 금했다고 한다. 이에 일연은 이를 진표대사의 얘기를 들어 의론해서 반박을 했다.<sup>29)</sup>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점찰경』이 593년 경 중국에서 이뤄졌다는 것과, 첩자를 던져서 전생의 죄업을 알고 그에 맞게 몸을 해하면서까지 참회를 하며 수행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점찰경』에서 점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를 알기 위해서 『점찰경』은 어떻게 짜였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알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점찰경』의 구조와 『점찰경』에서 갖는 점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점찰경』의 구조

『점찰경』은 다른 경전과 마찬가지로 문답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을 서사구조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견정신보살이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말세에 불법을 잇는 방법을 묻자, 부처님은 지장보살로 하여금 대신 답하게 하였다. 지장보살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중심을 잃고 허둥댈 것이니, 그때는 “장애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항상 목련상법을 사용하여 선과 악 숙세의 업, 현재의 괴로움과 즐거움, 길함과 흉함 등의 일을 점쳐서 살펴보아야 하나니…서로 응하고 차별함이 없나이다.” 라고 한다. 이로써 마음을 치유하고, 의심스러움을 해결할 것이지, 세간의 복서(卜筮)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점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서원을 세우고 던져서 결과를 얻는다. 선업을 얻은 자는 계속 정진을 구하고, 악업을 얻은 자는 참회를 해야 한다. 참회는 점의 결과에 따라 달리 행한다. 이리 하면 삼세인연으로 인해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어서 보살계를 받고자 하면 더욱 수행에 정진해야 한다.

견정신보살이 지극한 마음에 대해 물으니, 지장보살이 처음 배우고 익힐 것에 대해 마음을 갖고, 용맹하게 정진하며,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행하는 것

29) 위의 책, 332-3쪽.

이라 한다. 그리고 삼세과보는 189가지가 있음을 설명한다.(상권 끝)

견정신보살이 지장보살에게 대승을 향한 방안을 물었다. 지장보살은 근본업을 알아야 한다면서 쉼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스스로 경계 지은 마음의 안팎에 대해 인과로 설명하며, 본래는 나고 없어짐이 없다고 한다.

모든 것은 虛空하여, 부처님 중생 보살 등은 법신의 체로 보면 평등하다고 한다. 이를 깨닫고자 하면 유심식관(공)과 진여실관(수행)을 배워 익히라 한다. 그러면 불국토에 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 부처가 된다고 한다. 그 후에는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고 한다.

모든 대중들이 “저희들은 마땅히 받아 지니고 세간에 널리 퍼뜨려 하여금 감히 잊지 않게 하겠나이다.”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견정신보살에게 『점찰경』의 요체를 얘기한다.(하권 끝)

이를 구조화 하면 ‘점- 참회- 수행- 깨달음- 중생제도’의 단계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부연하면, 삼생의 선악을 점을 쳐서 선업이 있으면 더욱 정진하고, 악업이 있으면 참회하고 그에 맞게 수행하되 몸을 바쳐 행한다. 그래서 악업을 씻고 불국토에 이르며 더욱 수행하여 부처가 되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으로 짜여 있다. 이는 『삼국유사』에 전하는 점찰법회의 내용과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장보살본원경』 같은 경전에 비해서 보면 점이라는 행위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 그 점으로 전생의 업을 판단하여 수행의 방법을 결정한다는 조항이 다른 경문과 다르다. 따라서 『점찰경』에 있어 요체는 점에 있다.

## 2) 『점찰경』에서 점의 역할

『점찰경』의 구조에 있어 그 요체가 점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점찰경』에서 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에 앞서 점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웃놀이를 하듯이 간자를 던진다는 것은 일종의 놀이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점을 대할 때 두 가지 태도를 취한다. 하나는 점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점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

재미로 임하는 놀이의 성격도 있다. 때문에 짐은 원래 의도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놀이라는 재미를 동반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짐을 볼 때 너나나나 거리낌 없이 임하는 것이다. 절실한 사람은 절실한 대로 하고, 놀이의 태도로 임하는 사람은 재미로 짐을 보는 것이다.<sup>30)</sup>

마치 김시습의 『금오신화』 중 「만복사저포기」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것이다. 곧, 주인공 양생이 부처님과 저포놀이를 해서 이겨 원하는 색시를 얻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때 양생은 부처님과 함께 저포를 던지면서 최소한 위의 두 가지 태도를 가졌을 것이다. 하나는 저포놀이에 이겨서 부처님께서 외로운 노총각에게 배필을 구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지면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면 된다는 체념적인 놀이의 성격이다.

이처럼 짐은 현실의 절실함과 놀이를 동반한 재미라는 두 가지 태도에 의해 주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짐을 보고 나면, 사람들은 그 결과에 대해 매달린다는 것이다. 절실함으로 짐을 본 사람은 당연하지만, 재미로 본 사람도 결과가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결과가 나쁘면 마음 한 구석에 계속 남아 있게 된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묻게 되고 급기야는 짐의 결과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점찰경』의 짐은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활용했다.

『점찰경』의 구조에서는 짐이 중생들이 불교에 귀의하도록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마리는 현실에서 절실함을 타개하고, 반신반의하면서 재미나 놀이로 짐을 봤던 사람들에게 불교에 귀의하게 하고 열심히 수행하여 깨닫게 하는 매개역할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점찰경』에서 짐은 매개역할을 한다고 본다. 물론, 매개역할에 앞서 위 항목에서 본 궁금증 해소와 기대심리 충족, 행위에 대한 확인, 치유, 선택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그 바탕에 깔고 있다.

그렇다면, 짐이 『점찰경』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매개역할을 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점찰경』에서 짐은 중생들이 불교에 귀의하고, 수행 정진하여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교화하는 불교의 기본의도를 행하는 매개로 사용된

30) 박계홍도 놀이로서의 점 행위를 언급했고(앞의 책, 330쪽), 임동권도 오락과 승부 놀이로서의 짐을 언급했으며(『한국민속학논고』, 집문당, 1991. 109쪽), 김창진도 화투점 등의 놀이기능(앞의 책, 100쪽)을 언급했다.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점찰경』에서 점의 역할은 첫째로 포교활동 매개이고, 둘째로 깨달음과 중생제도 매개에 있다고 본다.

첫째, 『점찰경』에서 점의 역할은 포교활동의 매개에 있다. 불교에서 포교는 중생들을 불러서 불교에 귀의하고, 수행을 통해 깨달아서 부처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극락왕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점찰경』에서 점이라는 행위를 넣었을까? 앞서 보았듯이 한국인의 생활이 점으로 점철되었듯이, 인도나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을 통해서 미래를 알고자 했고, 그렇게 살아왔다.

이러한 점은 사람을 끌어 모으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본다. 아울러 점괘가 분명하게 나타남으로 믿고 따르게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점이라는 매개체를 넣어 대중들이 불교에 귀의하도록 했던 것이다.

『점찰경』의 끝부분에 표기된 내용에서 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너희들은 각각 응당 이 법문을 받아 지니며 머무는 바의 처소를 따라 널리 하여금 **유포**하여야 하리니 무슨 까닭인가 이와 같은 법문은 심히 만나기 어렵거니와 능히 크게 이익 되기 때문이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저 지장보살마하살의 명호를 듣고 그 설하는 바를 믿는 자는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속히 능히 여러 장애의 일을 떠남을 얻고 빨리 위없는 도에 이르게 되리라.

이에 대중들이 모두가 한 가지로 말하기를

저희들은 마땅히 **받아 지니고 세간에 널리 퍼뜨려** 하여금 감히 잊지 않게 하겠나이다.<sup>31)</sup>

이처럼 『점찰경』에서 점 행위는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포교활동을 하는데 매개로 사용한 것이다. 곧, 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생과 현생과 후생의 인연을 연계시키고, 점괘에 나타난 대로 더욱 수행에 정진하여 극락왕생하도록 한 것이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들이 불교에 귀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점찰경』에서 점의 역할은 불교를 포교하기 위한 매개에

31) 『점찰경』 영선사 번역본 중에서.

있었다.

둘째, 『점찰경』에서 점의 역할은 깨달음과 중생제도의 매개에 있다. 『삼국유사』에서 진표대사가 수행을 하거나, 중국 광주에서 스님 등이 처음 『점찰경』을 통해 수행할 때, 몸을 아끼지 않고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이들이 궁극적으로 바란 것은 깨달음에 있었다. 깨달은 후에는 몸이 흩어지는 등의 신이(神異)를 통해서 중생들이 불교에 귀의해서 신심으로 수행하여 모두 깨달기를 제도한 것이다. 곧, 자신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듯이 중생들도 그러한 길로 접어들기를 이끄는 것이다.

모든 불교의 경전이 그렇듯이,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점찰경』에서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이는 『점찰경』 끝부분에 기재된 내용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이 범문의 이름은 《점찰선악업보(占察善惡業報-선악의 업보를 점치어 살피는 것)》이며, 또한 《소제제장증장정신(掃除諸障增長淨信-여러 장애를 쓸어 없애고 바른 믿음을 증장시키는 것)》이며, 《개시구향대승자진취방편출심심구경설의(開示求向大乘者進趣方便出甚深究竟實義-대승을 구하여 향하는 자에게 방편을 열어 보이며 깊고 깊은 구경의 실다운 이치를 열어 보이는 것)》이며, 또한 《선악위설영리겁약속입견신결정법문(善惡慰說令離怯弱速入堅信決定法門-선과 악의 위로를 말하여 하여금 겁내고 약한 것을 여의고 속히 믿음을 견고히 하여 결정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니 이와 같은 이름의 뜻에 의지하여 너희들은 마땅히 받아 지닐지니라.<sup>32)</sup>

이처럼 『점찰경』에서 점은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게 하기 위한 매개로 삼은 것이었다. 점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한 것이다. 곧, 사람들이 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반영하여, 불교를 포교하고, 귀의하여 깨달아 부처가 되게 하는 것을 설법한 것이 『점찰경』의 요체임을 알 수 있다. 취지는 생전에 수재와 같이 살아 있을 때 전생의 죄업을 닦아 내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고자

32) 『점찰경』 영선사 번역본 중에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점찰경』에서 점은 중생들이 점을 통하여 불교에 흥미를 느끼고 그로 인해서 불교에 귀의하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불법을 깨달아 부처가 되고 중생을 제도하는 매개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점은 아주 큰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 IV. 결론

본고에서는 『점찰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한국인의 점풍속과 점의 역할을 고찰했다. 그리고 『점찰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정착하고 『점찰경』은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삼국유사』의 기록을 살펴보았다. 『삼국유사』는 『점찰경』에 대해서 기록한 최고의 기록물이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점찰경』에서 요체는 점에 있으므로 점이 『점찰경』에서 하는 역할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한국인은 점과 더불어 생활했고, 그 생활 속에는 개인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전통적인 입장에서 점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보았다. 곧, 미래에 대한 궁금중해소와 기대심리를 알고자 하는 역할, 확인 역할, 치유 역할, 선택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삼국유사』를 통해 본 『점찰경』과 점찰법회의 경우는 원광, 원효, 진표, 지혜 스님 등이 점찰법회를 열었고, 이미 신라 당시에 보편화된 법회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점찰경』을 통한 수행에는 몸을 돌보지 않고 수행해야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점찰경』의 구조는 ‘점- 참회- 수행- 깨달음- 중생제도’라는 구조를 나타냈다. 이처럼 점이 모든 수행 등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찰경』에서 점의 역할은 매개로 보았다. 이를 위해 사람들이 점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현실의 절실함과 놀이적인 재미로 나누었다. 둘 다 결과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대처함을 알았다. 그 때문에 『점찰경』에서는 점이라는 매개

체를 활용해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였다. 곧, 점은 포교활동을 매개했고, 깨달음과 중생제도의 매개역할을 한 것이다. 물론, 『점찰경』에서 점이 매개역할을 하는데, 그 바탕에는 일상적인 점의 역할이 바탕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고찰된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국역 중국정사조선전』, 국사편찬위원회, 1986.
- 김경탁 역저, 『주역』, 명문당, 1987.
- 김의숙이학주, 『강원인의 일생의례』, 민속원, 2005.
- 김창진, 「점복의 의미와 기능」, 『한국의 점복』, 민속원, 1995.
- 김태곤 외, 『한국의 신화』, 시인사, 1988.
- 김혁제 주해, 『원본토정비결』, 명문당, 1997.
- 민영규, 「十七世紀 李朝學人の 地動說:金錫文의 易學二十四圖解」, 『동방학지』 16집,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1975.
- 박계홍, 「점복·주술」, 『한국민속대관』3,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5.
- 박성석, 『한국의 민속』, 영남서원, 1993.
- 이학주, 『아들 낳은 이야기』, 민속원, 2003.
- 이학주, 「허생전의 구조와 의미」, 『한겨레 어문연구』1집, 한겨레어문학회, 2001.
- 이학주, 『인제사람들의 마을신앙』, 인제문화원, 2009.
- 『인제군사』, 인제군, 1996.
- 일연, 『삼국유사』, 이민수 역, 을유문화사, 1986.
- 임동권, 『한국민속학논고』, 집문당, 1991.
- 『점찰경』 영선사 번역본.
- 최인학, 「점과 민속」, 『한국민속학』, 새문사, 1988.

❖ ABSTRACT

## The Role of Fortunetelling in the Manners and Customs of Koreans and "Scripture of Fortunetelling(『占察經』)"

Lee Hak-ju

This study is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fortunetelling and the "Scripture of Fortunetelling(占察經)"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ners and customs of Koreans and the Buddhist Scripture dealing with the fortunetelling. It is meaningful to understand how it is related with Buddhism.

As a result, I perceived that Koreans have lived with fortunetelling and that the role of fortunetelling in from private person to the country. I saw there were four big roles; to clean the uncertainty of the future to fulfill the expectations, to confirm the justice of what he or she did, to cure, and to choice.

Looking into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三國遺事)", I see that the Scripture of Fortunetelling and the ceremony of fortunetelling was popular and those great monks such as Wongwang, Wonhyo, Jinpyo and Jihye presided these ceremonies.

The structure of the "Scripture of Fortunetelling(占察經)" has the hierarchy of Fortunetelling, Penance, Practice, Awakening, and Salvation of the world. So fortunetelling motivated every stage of practice.

The role of fortunetelling in "Scripture of Fortunetelling(占察經)" is to intermediate. For this purpose it divided the attitude for the fortunetelling into two categories; for the urgent real life and just for enjoying. But they seriously dealt with both results. They used the fortunetelling in order to accomplish the ultimate purpose of Buddhism. So the fortunetelling is a mean of propagation of Buddhism and a intermediary of awakening and salvation.

---

### Key Words

점, 점풍속, 점찰경, 점찰경의 구조, 점의 역할

Fortunetelling, Manners and customs of Fortunetelling, Scripture of Fortunetelling, Structure of "Scripture of Fortunetelling", Role of Fortunetelling



논문접수일: 2011. 10. 17.

심사완료일: 2011. 12. 05.

게재확정일: 2011. 12. 09.